

중국은 하나인데, 해석은 시장마다 달랐다.

17 October 2017

02.788.7178 fno@hyundaifutures.com

● 전일 주요 시장 동향

✓ **中 증시, 하락.** 중국인민은행(PBOC)이 예상 밖으로 긍정적인 경제 성장 전망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기술주들은 실망스런 실적 전망에 약세. 저우샤오촨 PBOC 총재는 경제가 올 하반기 7% 성장할 것이라고 말해 경기 둔화를 예상한 전문가들과는 상반된 견해를 내놓음. 기술주 위주인 차이넥스트지수는 2.3% 내려 3개월 만에 최대 낙폭 기록. 대형 기술기업들이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을 내놓은 영향. 시장은 제19차 공산당 대회(당 대회)가 개막하는 이번 주 증시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한편, 9월 생산자물가가 6개월 만의 최대 폭으로 오르고 은행들이 예상보다 더 크게 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해 시장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음. CSI300지수는 0.2% 내린 3,913.81에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0.4% 하락한 3,378.80에 마감.

상해종합지수 -0.4%

✓ **美 증시, 상승.** 지난주 약세였던 금융주가 반등하고 에너지주가 유가와 동반 상승하며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 종가로 마감. 3대 지수는 개장 직후부터 장중 사상 최고치(2만 2960.12/2559.47/6632.503)까지 모두 새로 씀. 은행들에 유리한 국채 수익률의 상승으로 인해 JP모건(+2.07%)과뱅크오브아메리카(+1.59%) 등이 은행주 강세 주도. S&P500 금융업종 지수는 0.64% 상승. 금융업종지수가 상승한 것은 4거래일만에 처음. 아이폰 제조사 애플은 키뱅크가 마진 성장 기대감 속에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한 뒤 1.84% 상승. 미 서부텍사스산 경질유(WTI)가 0.8% 오른 데 힘입어 S&P500 에너지업종지수도 0.22% 동반 상승했고, 텔레콤서비스업종지수도 0.77% 전진하며 상대적 강세를 보임.

다우 +0.37%, S&P500 +0.18%, 나스닥 +0.28%

✓ **美 달러, 상승.** 달러는 지난주 금요일 실망스러운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로 2주일여 저점까지 하락했지만, 전일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다시 설정하면서 소폭 상승. 시장 방향을 움직일 정도로 중요한 미국의 데이터는 이날 발표되지 않음. 반면, 지난 13일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CPI)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온순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인플레이션 개선을 예상했던 투자자들을 실망시킴.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차기 의장 지명을 위해 존 테일러 스탠포드대학 경제학 교수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블룸버그의 보도도 달러 상승 지지. 테일러는 엘렌보다 매파적 인물로 간주.

유로/달러 1.1820→1.1796 -0.2%, 달러/엔 111.82→112.19 -0.3%

✓ **유가, 상승.** 이라크가 쿠르드 자치정부(KRG)가 장악하고 있던 북부 키르쿠크 유전지대에 정부군을 투입하여 장악하며 이지역 긴장감이 고조되는데 따른 것. 이라크와 KRG간 긴장은 지난 달 25일 KRG가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며 촉발. 특히 이날 KRG는 이라크 정부군이 유전지대를 장악하자 지역 안전을 위해 키루쿠크의 원유 생산을 일시 중단. 이라크 당국은 주말 군사작전을 벌여 북부지역의 노스 정유사를 접수하고, 조기에 생산을 재개했다고 밝힘. KRG도 이번 사태로 원유 수출 송유관의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사태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 터키도 이라크의 요청시 KRG 송유관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재개 우려감도 유가 상승세에 일조하는 분위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이란의 핵협상 이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경제제재 재개에 대한 미 의회의 판단을 촉구.

WTI +0.82% \$51.87, 브렌트유 +1.14% \$57.82.

중국은 하나인데, 해석은 시장마다 달랐다.

시장은 조용한데, 가격은 시끄럽다. 특히, 전일 전기동은 미친 듯이 움직였다. 아시아 장부터 이미 \$7000선을 돌파한 전기동은 결국, 지난 2014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일 LME 전기동 가격은 전일대비 3.44% 상승한 \$7130에 마감.

중국은 하나인데, 해석은 시장마다 달랐다. 분명, 같은 중국인데 시장별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특히, 비철시장의 경우 큰 상승폭을 기록하며 근래 최고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중국내 분위기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중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기 때문이다.

일단, 전일 비철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건 인민은행 총재의 발언이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저우샤오촨 PBOC 총재는 경제가 올 하반기 7% 성장할 것이라고 말해 경기 둔화를 예상한 전문가들과는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거기에 전일 발표된 9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6.9%를 기록하며 6개월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건설경기 호황이 관련 자재가격을 상승시켰고, 당국의 대기오염 대책이 원자재 공급부족 우려를 자극해 가격을 상승시켰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자물가 상승률 확대는 경제와 공업부문 이익이 양호한 수준을 보일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전일 비철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6% 올라 전월대비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 증시는 긍정적인 지표나 발언에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기술주들이 실망스런 실적 전망에 하락했다. 사실 중국내 상황이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도 없다. 중국내 구리 수급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지표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일단, 지난 주 상해거래소 구리재고가 감소를 멈추고 소폭 증가했다. 거기에 현물 프리미엄도 상승세를 멈추고 횡보하고 있다. 이는 수급 움직임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상해거래소 전기동 재고 추이



그림 2. 중국 CIF 구리 현물 프리미엄 추이



결국, 전일 상승은 '랠리가 또 다른 랠리를 만든 것'일뿐, 계속 상승할 확실한 이유는 없다고 보는게 맞다. 물론, 한번 탄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 역시 크지만, 조정 없이 계속 오르는 것도 힘들다고 본다. 다만, 금일 시작되는 중국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나오는 발언들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움직임을 선볼리 단정짓기도 힘든 상황이다.

Precious Metal

금, 상승. 현재 진행중인 이란과 북한을 둘러싼 긴장, 그리고 최근의 부진한 미국 경제 데이터를 발판으로 온스당 1300달러를 돌파해 상승폭을 확대한 뒤 차익실현으로 압박받으며 하락세로 돌아섬.

한편, 필라듐은 중국의 강력한 자동차 판매를 기반으로 온스당 1000달러를 넘어서며 2001년 초 이후 최고 수준까지 전진한 뒤 후퇴.

금 현물은 뉴욕거래 후반 0.6% 내린 온스당 1296.51달러에 거래.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금 선물 12월 인도분은 0.1% 하락, 온스당 1303달러에 마감. 금 현물은 지난 6일 2개월 저점인 1260.16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북한 관련 우려와 달러 약세에 힘입어 반등흐름을 연출.

● 품목별 주요 뉴스

✓전기동

Copper Rises Through \$7,000/mt On Upbeat China Economy
Peru Says Over 20 Companies Interested In \$2B Copper Project
OZ's Q3 Mined Copper Output At 28,880 mt, Up 2.5% From Q2
China Sep Trade Balance +\$28.5B Down \$13.4B From Aug, on Higher Imports
LME Traded Record-Breaking \$130 Billion in Metals in One Day
Iron Ore Rallies as China Imports Bust 100M mt Level
China Central Bank Chief Surprises With Gravity-Defying 7% H2 Growth Forecast

✓알루미늄

Japan September Aluminum Port Stocks Down 2.4% MoM, Down 3.7% YoY
US Primary Aluminum MWP Hits Five-Month High At 9.5 Cents
Alcoa Reaches Early Termination Agreement for Rockdale Smelter Power Contract
Canada's Aluminium Must Arrive After Sep 21 For Duty-Free Status

✓납/아연

High Prices Threaten Zinc Die-Cast Market

DATA

● LME PRICE(3M)

LME	시가	고가	저기	종가	Change(\$)	%	월 누적평균(Cash)
전기동	6,890.5	7,177.0	6,854.0	7,130.0	237.0	3.44%	6,652.0
알루미늄	2,136.0	2,162.0	2,127.0	2,136.0	-1.0	-0.05%	2,123.6
아연	3,235.5	3,286.0	3,185.0	3,192.0	-54.5	-1.71%	3,322.6
납	2,544.5	2,584.0	2,529.0	2,546.0	11.0	0.43%	2,539.7
주석	20,680.0	20,780.0	20,620.0	20,695.0	30.0	0.14%	20,965.0
니켈	11,710.0	11,930.0	11,585.0	11,880.0	160.0	1.35%	10,898.2

● LME STOCKS

LME	금일재고	Change (+/-)	Change(t)	On Warrant	Cancelled	In	Out
전기동	285,025	UP	1,225	210,475	74,550	2,025	800
알루미늄	1,218,950	DOWN	10,800	969,700	249,250	0	10,800
아연	271,900	UP	975	125,525	146,375	3,100	2,125
납	151,975	DOWN	100	100,300	51,675	0	100
주석	2,090	UNCH	0	1,930	160	0	0
니켈	385,788	UP	216	248,124	137,664	528	312

● PRECIOUS METAL PRICE

Prec. Metals	LBMA Fixing		SPOT		COMEX Prec. Metal	
	AM	PM	Last(Spot)	Net Chg.	LAST	Net Chg.
GOLD	1305.15	1303.3	1294.58	-0.19	1303	-1.60
SILVER			17.265	0.005	17.369	-0.042
PLATINUM	943	945	935.75	-0.26	940.9	-5.90
PALLADIUM	1005	1006	979.5	1	976.3	-9.2

전기동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알루미늄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아연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납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니켈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주석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할 고객의 투자사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